

광양시, 명절 앞두고 소상공인 살리기 분주

광양사랑 상품권카드 홍보

재래시장 장보기 독려 등

대대적인 캠페인 전개

광양시가 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를 앞두고 지역 경제 살리기에 팔을 걷어붙였다. 경기침체와 팍팍한 살림살이로 힘들어하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어깨에 힘을 실어 주자는 취지로,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지역사랑, 광양사랑 상품권으로 = '광양사랑 상품권카드'는 광양에서만 쓰이는 카드로, 광양지역 내 1만1000개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적극 홍보해 나간다는 게 광양시 구상이다.

올해도 지역 내 73개 기관·기업체를 대상으로 협조 서한문을 보내는 한편, 민간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펼쳐진 경제살리기 운동 거리 캠페인. <광양시 제공>

단체와 관공단을 꾸려 총업원 50인 이상 기업체를 돌며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도 세워놓았다.

광양사랑 상품권카드는 지난 2008년(18억2000만원) 처음 발행된 뒤 ▲2009년 22억 5000만원 ▲2010년 8억6900만원 ▲2015년 8억2900만원 ▲2016년 24억 3000

만원 등 올해까지 118억원여치가 팔렸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지난해 12억원 상당의 상품권카드를 구입, 지역 소상공인들의 어깨에 힘을 실어줬다.

◇선물은 특산품으로, 먹거리는 재래시장으로 = 매년 명절을 앞두고 전개된 '재래시장 살리기'는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키

로 했다.

광양시는 특히 오는 9월 25일부터 29일까지 민간경제단체들과 광양 5일시장, 옥곡시장, 중마시장, 광영시장 등을 찾아 직접 명절 장보기에 나설 예정이다. 재래시장의 명절 상차려 비용이 대형할인매장에 비해 저렴하고 재래시장에서 소비된 돈은 지역경제로 환원된다는 점 등을 대대적으로 알리는 캠페인과 함께 업체·공무원 등에게도 적극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매실·백운곶감·광양 장도 등 특산품으로 명절 선물을 구입,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캠페인도 다음달 12일, 14일 광양시 중마동 건부두사거리, 광양을 인동로타리 등에서 펼치기로 했다. 7만 1000여명의 광양지역 근로자들을 위한 '기살리기' 운동도 진행한다.

광양시는 아울러 지역 기업체와 시장 등의 자매결연도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망덕포구서 즐기는 가을전어 향연

광양전어축제 내달 15~17일

“가을의 진미, 전어 맛보러 오세요~”

제 18회 광양전어축제가 오는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진월면 망덕포구 무점점광장에서 열린다.

축제는 '달빛나루! 망덕포구에서! 가을전어의 향연을 만끽하세요!' 라는 주제로 전어의 참맛을 느끼며 섬진강의 역사·문화·관광 자원을 활용한 공연, 시연, 체험 프로그램까지 즐길 수 있도록 꾸며진다. 전남도 무형문화재 57호인 전어잡이 소리로 들어볼 수 있다.

전어축제에서 빠질 수 없는 전어잡기 체험행사 뿐 아니라 섬진강 데크

길 위에서 진행되는 망덕포구 힐링 걷기행사, 전어탈쓰고 사진찍기 등은 주변 풍광을 느끼며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가족단위 프로그램으로 눈길을 끈다.

행사장이면 빠지지 않는 축하공연, 가요제, 초청가수 콘서트, 사물놀이 등도 진행된다.

서재삼 광양전어축제추진위원장은 “시민과 관광객 모두를 위한 맞춤형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면서 “가을의 맛과 멋이 있는 망덕포구에서 섬진강의 가을을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기자 kds@

‘조금 다르게 미술보기’

중마도서관 인문학 강좌

내달부터...선착순 40명 모집

미술관을 찾는 게 어렵다는 지역민들, 무척 많다. 학교에서 배운 듯한데 모르는 게 너무 많고 답도 명확하지 않다.

미술 작품을 보면서 역사와 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술가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광양시립중마도서관이 오는 9월 1일부터 마련한 ‘조금 다르게 미술보기’는 서양 미술사를 다른 시각으로 들여다보며 예술가와 대화의 기회를 제공한다. 긴 사색과 스스로 대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는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화가의 마지막 그림’이라는 책을 쓴 이 유리 작가가 강사로 나서 ‘남성캔버스를 찢고 나온 여성예술가’, ‘사회적 약자와 연대한 예술’, ‘전쟁과 폭력을 다룬 반전예술’ 등을 주제로 서양 미술사를 여성,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관점으로 볼 것을 제안한다.

참석자들은 또 통영 율미미술관 ~ 남방산 조각공원 ~ 이중섭 거주지 ~ 전혁림미술관을 둘러보면서 당시 예술가들의 생각을 되짚어볼 계획이다. 수강료는 무료로 희망자를 선착순으로 40명 모집한다. 문의 061-797-2447.

/광양=김대수기자 kds@kwangju.co.kr

“가을 관광객 유치하자” 광양시 고향 국제관광박람회 참가



관광 명소 알리기 나서

광양이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에 참석, 가을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

광양시는 오는 27일까지 고향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2017 제 2회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에 참가, 특색있는 지역만의 볼거리와 먹거리를 집중 홍보한다. 이

번 박람회는 국내외 관람객 10만 명이 방문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관광업계 800여 곳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다.

광양시는 행사 기간 운영하는 홍보관을 통해 지역 문화와 역사, 느랭이골 자연리조트와 광양와인동굴(사진) 등 주요 관광명소를 알릴 계획이다.

특히 광양전어축제와 제 16회 광양전 통술불구이(9월 21~24일) 축제를 앞두

고 집중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 관광객들의 발길을 붙든다는 구상이다.

광양시는 아울러 매실구기와 표고버섯 등 비교우위의 농특산품에 대한 홍보 마케팅도 전개할 계획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광양의 멋과 맛을 적극 알리려는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기자 kds@



광양제철 “홀로 사는 어르신 챙겨요”

고독사 지킴이 봉사단 창단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최근 고독사 지킴이 봉사단을 창단, 지역 홀로 사는 노인들을 챙기고 나섰다.

봉사단 49명은 최근 중마동 주민센터에서 발대식(사진)을 갖고 홀로 사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정서안정 및 생계형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광양=김대수기자 kds@

이들은 대상 노인들을 찾아 다니며 화분 가꾸기, 생신상 차려드리기, 명절 일일 자녀되기 등의 활동을 펼치는 한편, 노인들의 주거환경 개선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봉사단 관계자는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봉사 활동으로 지역사회의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기자 kds@

2017 전국 최신 트렌드 창업아이템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

제2회 광주·전남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2017.8.25(금)~27일(일)

8월 26일까지 온라인사전등록 무료

창업전문가와 함께하는 무료 창업아카데미

장소 | 김대중컨벤션센터 3F 303호 컨퍼런스룸

구분	시간	강의 주제	강사
8/25 (금)	12:30 ~ 13:40	소상공인을 위한 매출증대 및 활성화 전략	송지현
	13:50 ~ 15:00	프랜차이즈 사업과 법률	이지훈
	15:10 ~ 16:20	(창업주를 위한) 돈이 절약되는 근로계약서	이자랑
8/26 (토)	12:30 ~ 13:40	ceo탄생	이경희
	13:50 ~ 15:00	로컬 프랜차이즈산업화 전략	조계현
	15:10 ~ 16:20	불확실성시대 창업성공전략	강신규
구분	시간	내용	
8/27 (일)	13:00 ~ 13:50	대한민국 대표청각전문기업 '스타키코리아' 브랜드 사업설명회	
	14:00 ~ 14:50	4차 산업혁명의 중심 VR 창업기업 '위드VR' 브랜드 사업설명회	
	15:00 ~ 15:50	소자본 1인 소형이사 전문 창업기업 '짐도리' 브랜드 사업설명회	

* 일자별 강좌는 강사의 스케줄에 따라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